

‘범현대가 3세’... 미국 협력으로 조선업 호황 기대

지주사 HD현대는 1970년 현대건설 내에 발족한 조선사업부가 모태로 1973년 현대조선공업으로 분리된 뒤 1978년 현대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2002년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재출범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사업을 비롯해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중합중공업체 반열에 올랐다.



2022년 말 창립 50주년을 맞아 20년간 사용했던 사명을 HD현대로 교체했다. 이는 제조업 중심 이미지를 탈피해 투자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선박수소연료 전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는 취지였다.

2022년 말 창립 50주년을 맞아 20년간 사용했던 사명을 HD현대로 교체했다. 이는 제조업 중심 이미지를 탈피해 투자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선박수소연료 전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는 취지였다.

HD현대를 이끄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1982년생으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다. 대일외고와 연세대 경제

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가 잠깐 기자 생활을 한 후 2009년 현대중공업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스탠퍼드대에서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마친 뒤 크레디트스위스 인턴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았다.

2013년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으로 복귀해 2014년 기획재무부부장 상무·2015년 기획재무총괄부부장 전무·2017

년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18년부터 중공업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와 지주 경영지원실장을 겸했다.

2016년에는 선박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HD현대마린솔루션(당시 HD현대글로벌서비스)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21년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함께 HD현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정 수석부회장은 조선 사업 외에도 정유·건설기계·전력기기 등 그룹 내 주요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했다.

2022년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미국 기업 테라파워에 대한 투자 계약과 세계 최고 빅데이터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다양한 공헌을 통해 지난해 말 수석부회

장으로 승진해 그룹의 주요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신새로운 기업문화 확산 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안정된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써 자녀 유치비 지원·직장 어린이집 개원·유연근무제 도입·임직원 패밀리 카드·사내 결혼식장 무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회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HD현대는 7월 미국 최대 방위산업 조선사인 헨팅턴 잉겔스와 손잡고 선박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방산 조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언급해 양국 간 조선업계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예전에 우리는 배를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업에 많은 돈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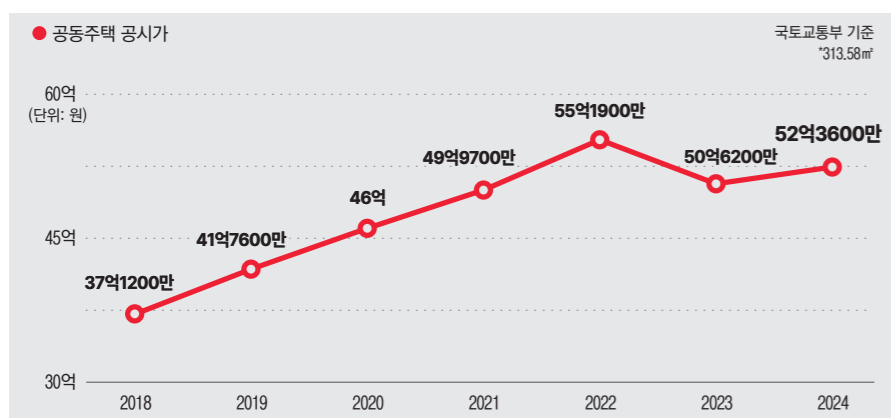
한편 정 수석부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사진)을 2022년 4월 85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284.21㎡(약 85.97평)·전용면적 233.062㎡(약 70.50평) 규모로 최근 실거래가는 2024년 9월 매매된 106억 원이다.

우리나라 부촌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남더힐은 와내관이 모두 고급스럽게 지은데다 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및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다.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지 못해 보안 수준이 높아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이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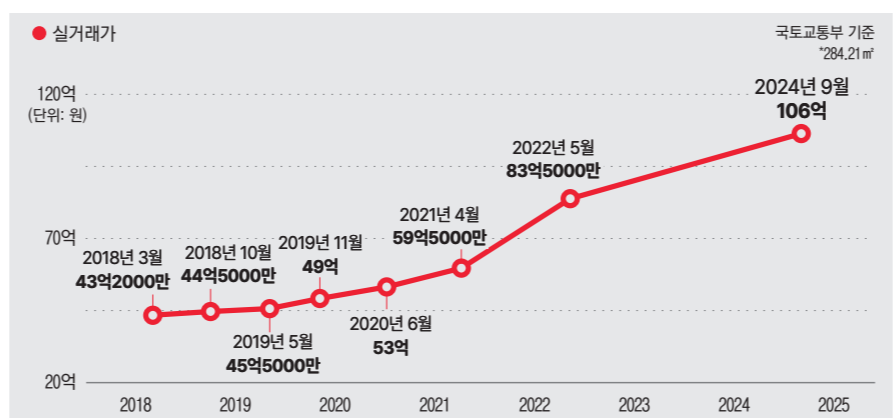
단지 앞에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숲이 자리잡아 풍수지리상 명당의 조건을 갖췄으며 단지 내에도 조경이 잘 돼 있어 주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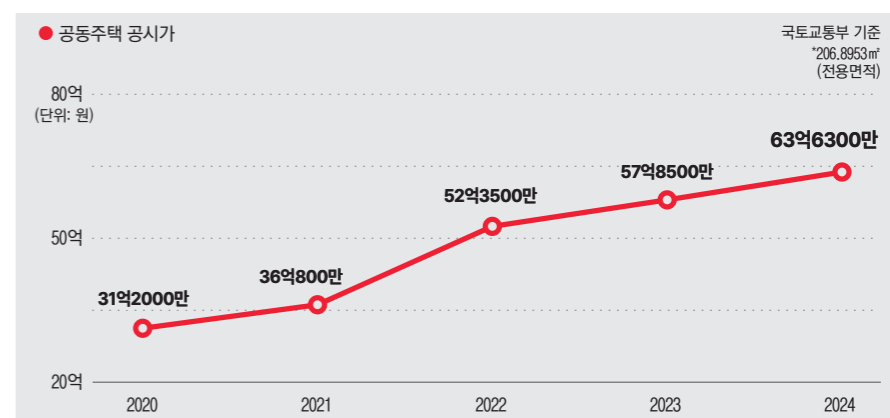
코번하우스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구자균 현)LS일렉트릭 대표이사 회장



1974년 설립된 럭키포장 주식회사가 모태로 국내 배전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지난해 북미 중심으로 배전사업과 초고압 사업 호조로 연간 매출 4조5518억 원 영업이익 3897억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고(故) 구평희 E1 명예회장의 3남이자 구자열 LS의 장의 둘째 동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에서 국제경영학 석사, 경영학 기업재무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국민대와 고려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강단에 오르다 2005년 LS산전(현 LS일렉트릭) 관리본부 부사장을 맡아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2008년 대표이사 사장·2009년 부회장·2014년 회장으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 기업을 이끌며 전력·전산·전기 시스템 업계가 함께 참여한 지능형 전력망협회를 2009년 설립해 회장을 맡았다. LS그룹 핵심 계열사인 LS일렉트릭은

김중호 현)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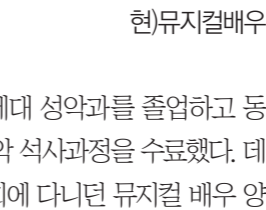


사를 인수하면서 증권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2019년 6월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했고 2022년 6월 주주총회를 거쳐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해 금융 네트워크 분야와 그룹 성장 전략을 맡았다.



김중호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증권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금융(IB) 전문가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나증권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리딩투자증권 본부장,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메리츠증권 본부장을 지냈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리딩투자증권 총괄 부사장으로 복귀해 IB부문 대표를 역임한 뒤 2016년 9월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2016년 리딩투자증권 매각이 수차례 무산됐을 당시 부사장으로서 CKK파트너스를 꾸려 리딩투자증권을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MBO(내부경영자인수·Management BuyOut) 방식으로 회

손준호 현)뮤지컬배우



각 라울과 크리스틴 역을 맡아 사랑을 키운 뒤 화제를 받았다. 뮤지컬 ‘명성황후’ 무대에 함께 올라 김소현이 명성황후 역을, 손준호가 고종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해 화기에 애한 부부애를 보여줬다.



손준호는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성악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데뷔 전 같은 교회에 다니던 뮤지컬 배우 양준모에게 조언을 구한 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오디션에 소개받아 뮤지컬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삼총사’ ‘팬텀’ ‘엑스칼리버’ ‘마리 앙투아네트’ ‘모짜르트!’ ‘드라쿨라’ 등 다양한 뮤지컬에 출연해 따뜻한 음색과 풍성한 성량으로 갈채를 받았다. KBS2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으며 특히 ‘복면가왕’ 49차 경연에서 ‘천둥번개의 신토르’로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소현과 2010년 ‘오페라의 유령’ 공연에서 각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